

相火學說에 나타난 龍火의 개념 및 治法에 대한 고찰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殷哲攻*

A Study on the Concept and Therapeutic Application of Dragon Fire in Ministerial Fire Theory

Eun Seok-min*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genealogy of the Ministerial Fire Theory in relation to Wangbing's Dragon Fire discourse through examining how Wang's Dragon Fire content first mentioned in the annotation of 『Suwen』 was included into the discourse of the Ministerial Fire Theory in explaining the concept of Ministerial Fire and its therapeutic application.

Methods : First to examine the inclusion and application of the Dragon Fire concept into the Ministerial Fire Theory, Zhudanxi's theory and critiques on him were studied. Next the concept of Dragon Fire within the Ministerial Fire Theory was analyzed, followed by comparison between generations of doctors's therapeutic application of Ministerial Fire and Wangbing's Dragon Fire application.

Conclusions & Results : Wangbing's dragon fire concept held an important position in discussing its characteristic as fire within water, which was adopted and differentiated by later doctors in aspects of pathology, deficiency and excessiveness, influenced by various theoretical elements of later periods. In the midst of expansion of the concept from combination of dragon fire and ministerial fire, the therapeutic aspect of it was maintained from Wangbing's original mentioning. This tendency manifested in either awkward combination of Wang's therapeutic methods and the new theory or modification of Wangbing's methods.

Key words : Dragon fire(龍火), Ministerial fire(相火), Neijing(內經), Wangbing(王冰)

* Corresponding Author : Eun Seok-mi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Woosuk University, 443 Samnye-Rd, Wanju-Gun, Jeonbuk, ROK.

Tel: +82-63-290-1475, E-mail : eskmin@woosuk.ac.kr

Received(January 21, 2020), Revised(January 26, 2020), Accepted(January 26,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의서에 등장하는 龍火란 용어는 본래 唐代 王冰의 『素問』 注解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王冰은 『素問·至真要大論』에서 “寒者熱之, 熱者寒之, 微者逆之, 甚者從之, ……”라 한 부분 중의 ‘微者’와 ‘甚者’에 대한 예로서 각각 人火와 龍火를 말했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人火는 병이 微小한 경우에 속하며, 그 治法은 火의 性에 逆하여 水로써 滅할 수 있으므로 逆治가 된다. 반면에 龍火는 병이 甚한 경우에 속하며, 그 性을 모르고 水로써 滅하려 한다면 오히려 火가 더 타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龍火에 대해 王冰은 오히려 “以火逐之”의 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는 곧 火로 火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從治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王冰은 人火와 龍火가 지니는 火로서의 특성과 그 治法을 말하였으나, 人火와 龍火의 실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人火보다는 일반적인 水火의 이치에서 벗어나 그 실질이 더욱 모호한 龍火에 대한 큰 의문을 낳을 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龍火가 王冰 이후로 의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金元代라 할 수 있는데, 龍火가 水中之火의 개념으로 언급되거나 『內經』에서 말한 相火와 연결되어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그 이론적인 면을 체계화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의가는 朱丹溪라 할 수 있다. 朱丹溪는 『內經』에서 말한 相火를 天火, 龍雷之火 등의 개념을 통해 논함으로써 相火學說을 구체화한 의가로서, 후대에 미친 영향이 컸던 만큼 이후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른바 濫補學說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相火學說의 전개에 있어 王冰의 龍火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가운데, 趙體浩, 陳林威 등은 역대 相火學說에 등장한 龍雷之火의 개념이 王冰의 龍火 개념을 그 원류로 하면서 일정한 分岐가 이루어졌음을 논하였다¹⁾. 다만 이들 연구들은 龍火 개념이

후대의 의학이론에 도입된 과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相火로서의 龍火의 治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 相火學說 내의 龍火 개념의 원류가 王冰임에 근거하여 相火로서의 龍火의 특성을 논하는 것에 비해 그 治法과 관련하여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의 개념이 역대 의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相火와 관련하여 흔히 滋陰降火나 引火歸源 등의 治法이 언급된다고 할 때 이들 治法은 모두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王冰의 龍火 개념이 相火 개념과 합해졌다면 王冰이 말한 治法 역시 相火學說 내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王冰의 “以火逐之”의 治法이 相火學說 내의 다양한 요소들과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龍火 개념이 相火學說에 도입되어 활용된 과정을 朱丹溪의 相火學說과 그에 대한 孫一奎, 趙獻可, 張景岳 등의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이어 相火學說에서 제시된 相火로서의 龍火의 治法이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의 治法을 어떤 형태로 계승 또는 변화시킨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고찰이 朱丹溪 이래의 相火學說을 이해함에 있어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朱丹溪의 相火學說에 나타난 龍火

朱丹溪는 『格致餘論』에서 君火, 相火에 대해 논하면서 君火를 人火, 相火를 天火라 하는 한편 天火로서의 相火에 대해 龍雷之火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極은 動하여 陽을 생하고 靜하여 陰을 생한다. 陽은 動하여 變하고 陰은 靜하여 습하니 水, 火, 木, 金, 土의 性을 하나씩 생하게 된다. 오직 火만이 性이 둘이니, 君火라 하는 것은 人火이고 相火라 하는 것은 天火이다. 火는 안은 陰이고 밖은 陽으로서 動

1) 趙體浩. 龍雷之火芻議. 河南中醫. 1983. 第1期. / 陳林威. 飲水思源, 追尋古迹-試析“龍雷之火”含義. 光明中醫. 2011. 26(1).

을 주관하는 것이니, 무릇 動하는 것은 다 火에 속한다. 名으로써 말한다는 것은 形과 氣가 서로 생하여 五行과 짝이 되므로 君火라 하는 것이고, 位으로써 말한다는 것은 虛無에서 생하여 位를 지키면서 命을 받으니 그 動함으로 인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相火라 하는 것이다. 天은 物을 생하는 것을 주관하므로 늘 動하는 것이며 사람이 사는 것도 또한 늘 動하는 것이니, 끊임없이 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相火가 있기 때문이다. 天에서 나타나는 것은 龍雷로부터 비롯되니 木의 氣이고, 海에서 나타나는 것은 水의 氣이다. 사람에게서는 肝과 腎의 두 부분에 깃들어 있으니, 肝은 木에 속하고 腎은 水에 속한다.”²⁾

丹溪는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君火以明, 相火以位”라 한 것에 대해 君火는 五行에 배속되는 것이지만 相火는 虛無에서 생하여 그 位를 지키면서 君火의 命을 받드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³⁾ 相火는 虛無에서 생하므로 人火로서의 君火와 달리 形과 氣가 서로 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天火가 龍雷로부터 출하거나 바다에서 출하는 등 動함으로 인해 그 작용이 드러나게 되듯이 인체 내에서도 相火가 肝과 腎에 깃들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丹溪의 논의에서 相火는 天火, 龍雷之火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기술되었고, 여기서 天火와 龍雷之火는 『天元紀大論』에서 “相火以位”라 한 것에 더하여 相火가 생하는

근원과 그 火로서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개념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相火를 天火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局方發揮』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저작에서 丹溪는 相火가 『內經』에서 말하는 “一水不勝二火”의 “火”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天造”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丹溪는 相火 외에 또한 臟腑厥陽之火가 있음을 말하였고, 相火가 “天造”에 의한 것이라면 臟腑厥陽之火는 『內經』에서 말한 “一水不勝五火”의 “火”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人欲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다.⁴⁾ 이 내용은 丹溪가 氣의 病이 대부분 火에 속하며 寒에 속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을 논하는 가운데 말한 것이다.⁵⁾ 여기서 相火가 “一水不勝二火”의 “火”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素問·逆調論』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서⁶⁾, 『素問·逆調論』에서는 骨痺에 대해 논하면서 腎의 水가 肝과 心의 두 火를 勝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丹溪는 이 경우의 火가 相火에 속하며 그것이 “天造”로부터 비롯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臟腑厥陽之火가 “一水不勝五火”의 火에 해당된다는 것은 『素問·解精微論』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서, 厥이 있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원인을 “一水不勝五火”라 하였다.⁷⁾ “一水不勝五火”의 “火”를 丹溪가 臟腑厥陽之火라 한 것은 王冰이 “五火”를 “五臟之厥陽”이라 한 것으로부터 영

2)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34. “太極, 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各一其性. 惟火有二, 曰君火, 人火也, 曰相火, 天火也.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故凡動皆屬火.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于五行, 故謂之君, 以位而言, 生于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 天主生物, 故恒于動, 人有此生, 亦恒于動, 其所以恒于動, 皆相火之爲也. 見于天者, 出于龍雷, 則木之氣, 出于海, 則水之氣也. 具于人者, 寄于肝腎二部, 肝屬木而腎屬水也.”
3)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본래 “君火以明, 相火以位”라 했지만 丹溪의 相火論에서는 “君火以名, 相火以位”라 하여 “君火以明”의 “明”을 “名”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王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白裕相과 李容範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白裕相.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의 『相火論』의 비교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pp.382-383./ 李容範. 朱丹溪 相火論의 君火, 相火 개념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4). pp.32-33)

4) 朱丹溪. 局方發揮.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p.945-946. “予曰, 相火之外, 又有臟腑厥陽之火. 五志之動, 各有火起. 相火者, 此『經』所謂一水不勝二火之火, 出于天造. 厥陽者, 此『經』所謂一水不勝五火之火, 出于人欲.”
5) 朱丹溪. 局方發揮.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45. “予曰, 五臟各有火, 五志激之, 其火隨起. 若諸寒爲病, 必須身犯寒氣, 口得寒物, 乃爲病寒. 非若諸火病自內作, 所以氣之病寒者, 十無一二.”
6)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55. “帝曰, 人有身寒, 陽火不能熱, 厚衣不能溫, 然不凍栗, 是爲何病? 岐伯曰, 是人者, 素腎氣勝, 以水爲事, 太陽氣衰, 腎脂枯木不長, 一水不能勝兩火. 腎者水也, 而生于骨, 腎不生, 則髓不能滿, 故寒甚至骨也. 所以不能凍栗者, 肝一陽也, 心二陽也, 腎孤臟也, 一水不能勝二火, 故不能凍栗, 病名曰骨痺, 是人當學節也.”
7)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64. “厥則目無所見. 夫人厥則陽氣并于上, 陰氣并于下, 陽并于上則火獨光也, 陰并于下則足寒, 足寒則脹也. 夫一水不勝五火, 故目眇盲.”

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⁸⁾, 이 경우의 火를 丹溪는 “人欲”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 것이다. 臟腑 厥陽之火는 결국 五臟이라는 形 안에 모두 火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丹溪가 人火에 대해 이를 “形氣相生”이라 한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相火와 臟腑厥陽之火를 각각 “天造”와 “人欲”에 의한 경우로 나눈 것은 君火, 相火를 왜 人火, 天火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丹溪의 논의에서 相火가 肝腎에 깃들여 있다고 하는 것은 肝, 腎과 짝이 되는 膽, 膀胱 및 下焦를 포괄하는 것이다.⁹⁾ 따라서 이는 본래 相火가 『內經』에서 “君火以明, 相火以位”라 하여 少陽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넘어 厥陰, 太陽 등까지 포괄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丹溪는 相火에 대한 이 같은 관점의 논의가 이미 李東垣, 張子和로부터 있었으며 자신도 그들의 논의를 계승하여 논하는 것일 뿐이라 하였다.¹⁰⁾

이와 관련하여 먼저 東垣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足太陽, 足少陰에 있어 東垣이 炒黃柏의 辛味로 水 중의 火를 瀉한 이치를 취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東垣이 張元素의 설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張元素의 『醫學啓源』의 「去臟腑之火」를 보면 黃柏으로 膀胱의 火를 瀉한다고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는 膀胱이 水의 府이므로 膀胱의 火를 龍火라고도 한다고 하였다.¹¹⁾ 이는 龍火 개념이 아직은 相

火 개념과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水中之火이자 臟腑之火란 병리적 의미로 언급되기 시작한 초기의 예로 생각되며, 그에 대한 약물을 말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東垣의 『珍珠囊藥性賦』에서는 黃柏이 下焦에 隱伏한 龍火를 瀉하며, 黃柏을 炒하여 쓰면 腎을 補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²⁾ 東垣은 그의 陰火 관련 논의에서 龍火를 특별히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주장한 陰火 개념도 일정 부분 이 같은 龍火 개념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張子和가 “膽與三焦尋火治, 肝和胞絡都無異”라 한 것은 『儒門事親』의 「辨十二經水火分治法」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¹³⁾, 十二經의 水火分治에 있어 膽, 三焦, 肝과 心胞絡이 모두 火에 속함을 말한 것이다. 그 논의에 따르면 六氣를 다스림에 있어 寒과 濕이 同類이고 火와 熱이 同類이며, 風과 燥도 결국 火와 같은 부류로 간주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膽과 三焦, 肝, 胞絡에 火가 있다고 한 것을 丹溪는 모두 相火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와 같이 丹溪가 언급한 것 외에 張子和가 王冰이 말한 龍火를 相火 개념과 합하여 논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儒門事親』의 「喉舌緩急砭藥不同解二十一」에 따르면 張子和는 君火를 人火라 하고 相火를 龍火라 하였다.¹⁴⁾ 그리고 龍火의 치법에 대해 張子和

火, 須用黃芩佐之, 柴胡瀉肝火, 須用黃連佐之, 膽經亦然, 黃柏瀉膀胱火, 又曰龍火, 膀胱乃水之府, 故曰龍火也.”

8)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643. “眦, 視也. ‘一水’, 目也. ‘五火’, 爲五臟之厥陽也.”
9)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34. “膽者, 肝之腑, 膀胱者, 腎之腑, 心胞絡者, 腎之配. 三焦以焦言, 而下焦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
10)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35. “或曰, 『內經』相火, 注曰少陰少陽矣. 未嘗言及厥陰太陽, 而吾子言之何耶? 曰, 足太陽少陰, 東垣嘗言之矣, 治以炒柏, 取其味辛能瀉水中之火是也. 戴人亦言, 膽與三焦尋火治, 肝和胞絡都無異. 此歷指龍雷之火也. 予亦備述天人之火皆生于動, 如上文所云者, 實推展二公之意.”
11) 張元素, 醫學啓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 49-50. “黃連瀉心火, 黃芩瀉肺火, 白芍藥瀉肝火, 知母瀉胃火, 木通瀉小腸火, 黃芩瀉大腸火, 石膏瀉胃火, 柴胡瀉三焦

12) 李東垣, 珍珠囊藥性賦.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892. “黃柏, 味苦性寒無毒, 沈也, 陰也. 其用有五, 瀉下焦隱伏之龍火, 安上焦虛熾之蛔虫, 臍下痛單制而能除, 腎不足必炒用而能補, 痿厥除熱藥中, 誠不可缺.”
13) 張子和, 儒門事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495. “膽與三焦尋火治, 肝和胞絡都無異, 脾肺常將濕處求, 胃與大腸同濕治, 惡寒表熱小膀胱, 惡熱表寒心腎熾. 十二經, 最端的, 四經屬火四經濕, 四經有熱有寒時, 攻裏解表細消息. 濕同寒, 火同熱, 寒熱到頭無兩說, 六分來半分寒, 寒熱中停眞浪舌. 休治風, 休治燥, 治得火時風燥了. 當解表時莫攻裏, 當攻裏時莫解表, 表裏如或兩可攻, 後先內外分多少. 敢謝軒岐萬歲恩, 爭奈醜鷄笑天小.”
14) 張子和, 儒門事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402. “余謂一言可了者, 火是也. 故十二經中, 言噎乾噎痛, 咽腫領腫, 舌本強, 皆君火爲之也. 唯喉痺急速, 相火之所爲也. 夫君火者, 猶人火也, 相火者, 猶龍火也. 人火焚木其勢緩, 龍火焚木其勢速.”

는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를 언급하였고, 이는 곧 涼藥을 熱服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⁵⁾

한편 丹溪가 말한 相火가 기존의 龍火, 陰火 등의 개념과 모두 관계된 것이라 할 때, 이상과 같은 李東垣과 張子和의 예 외에도 陰火와 관련하여 宋代의 의가인 龐安常의 예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單體亮에 따르면 龐安常이 陰火에 대해 언급했음을 역대 다수 의가들의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저작들로는 明代 秦景明의 『症因脈治』, 張景岳의 『景岳全書』, 趙獻可의 『醫貫』, 羅美的 『古今名醫薈粹』, 清代 馮兆張의 『馮氏錦囊秘錄』, 黃庭鏡의 『目經大成』, 程杏軒의 『醫述』 등이 있다.¹⁶⁾ 이 저작들에서는 모두 말하기를 “龐安常曰, 有陰水不足, 陰火上升, 肺受火侮, 不得清肅下行, 由是津液凝濁生痰不生血者, 此當以潤劑治之. 如門冬地黃枸杞之屬, 以滋其陰, 使上逆之火, 得反其宅, 則痰自清矣. 投以二陳, 立見其殆.”라 하였으며, 이 내용은 龐安常의 저작들 중 오늘날 유일하게 전하는 『傷寒總病論』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痰飲에 대해서는 『金匱要略』 이래로 溫한 성미의 治法을 많이 사용하였고 二陳湯도 그 같은 성격의 것이지만, 龐安常은 滋陰의 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른바 痰火의 발생기전을 陰火의 개념을 통해 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朱丹溪가 발전시킨 痰飲論과도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와 관련하여 朱丹溪의 『丹溪手鏡』을 보면 張子和의 경우와 같이 喉痺의 병인을 相火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痰火로 인해 咽喉 부위에 발생하는 여러 병증 가운데 喉痺의 경우는 그 병인이 相火

이며, 이에 대해 王冰이 龍火에 대해 말한 “以火逐之”의 治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⁸⁾ 이와 같은 내용은 丹溪가 『格致餘論』의 「相火論」에서 相火가 “暴悍酷烈”함으로 인해 相火로 인한 병증이 君火로 인한 병증보다 심하다고 한 것과 상통하며¹⁹⁾, 相火를 또한 王冰이 말한 龍火와 같은 맥락에서 논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丹溪는 『內經』에서 말한 “君火以明, 相火以位”를 기초로 하면서 아울러 기존 의가들의 논의에 등장하는 水中之火, 陰火, 龍火 등의 火 개념을 종합함으로써 자신의 相火學說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丹溪가 말한 龍火 내지 龍雷之火에 대한 治法은 잘 알려진 滋陰降火의 법을 비롯하여 涼劑를 熱服하는 법 등을 두루 포괄하는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龍雷之火란 표현은 相火와 관련하여 王冰의 龍火 개념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相火에 天火의 개념을 부여하면서 기존의 龍火 개념을 새롭게 확장시킨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王冰의 龍火 개념은 水를 만나면 더 타오른다고 하는 火로서의 특성만을 말한 것이었지만, 丹溪는 龍雷가 天에서 出한다고 하여 그 火의 근원이 天이라 하는 점을 덧붙임으로써 火의 근원과 특성이 합해진 것으로서의 龍雷之火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3. 朱丹溪의 설에 대한 비판

1) 孫一奎

丹溪의 相火學說에 대한 孫一奎의 비판은 『赤水

15) 張子和, 儒門事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p.402-403. “又嘗治一貴婦喉痺, 蓋龍火也, 雖用涼藥而不可使冷服, 爲龍火宜以火逐之. 人火者, 烹飪之火是也. 乃使曝于烈日之中, 登于高堂之上, 令侍婢携火爐, 坐藥銚于上, 使藥常極熱, 不至大沸, 通口時時呷之, 百餘次, 龍火自散.”
16) 單體亮, 中醫“陰火”理論的古代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p.22.
17) 明代의 의가인 李梴은 『醫學入門』의 「原道統說」에서 丹溪가 기존의 痰飲論의 틀을 넘어 痰火 관련 이론을 새롭게 개척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55. “至于丹溪朱氏, 傷寒內傷雜病, 無不精研, 痰火奧義, 猶其獨得, ……”)

18) 朱丹溪, 丹溪手鏡.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p.1069-1070. “蓋因痰熱內結, 雖有蛾閉, 木舌, 子舌, 纏喉, 走馬八名, 火則一也. 夫少陰君火, 少陽相火, 并絡于喉, 氣熱則結. 甚則腫脹, 甚則痺, 痺甚不通而死. 惟喉痺急速, 相火之爲也. 至如噎乾痛, 咽頰腫, 舌木強, 皆君火之爲也. 治法: 微以鹹之, 甚以辛散之, 痰結則吐之, 甚則衄出血之, 人火以涼平之, 龍火以火逐之, 涼劑熱服是也, 宜刺少商出血.”
19)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p.934-935. “君火之氣, 經以暑與濕言之, 相火之氣, 經以火言之, 蓋表其暴悍酷烈, 有甚于君火者也, 故曰相火元氣之賊.”

玄珠』와 『醫旨緒餘』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가운데 『醫旨緒餘』의 「丹溪相火篇議」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內經·陰陽應象大論』을 보건대 壯火의 氣는 衰하고 少火의 氣는 壯한다는 말이 있었고 「天元紀大論」에는 ‘君火以明, 相火以位’라는 말이 있었을 뿐, 天火, 人火, 龍雷之火와 같은 설들은 결코 없었는데 丹溪에 이르러 이를 말하기 시작한 것은 왜인가? 내가 丹溪의 뜻을 살펴보건대 肝腎의 陰에 모두 相火가 들어 있다고 하니, 이런 까닭으로 肝腎의 陰火를 相火라 하게 되었다. 또 말하기를 天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龍雷에서 出하는 것은 木의 氣이고 海에서 出하는 것은 水의 氣라 하였다. 아마도 龍雷가 다 動하는 物이고 動하는 것은 모두 火에 속한다고 여기다 보니 相火를 天火로 여긴 듯하다. 만약 動하는 것은 다 火에 속한다고 하여 결국 相火를 天火로 여긴 것이라면, 君火도 또한 動하는 때가 있는데 홀로 天에 속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말하기를 火는 調和生息을 맡은 것으로서 動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妄動해서는 안 될 따름이며, 火에는 天과 人의 구분이 있지만 君火와 相火를 각기 天火와 人火로 나눌 수는 없다고 하니, 왜 이렇게 말하는가? 대개 天에 六氣가 있음에 君火는 二之氣를 주관하고 相火는 三之氣를 주관하니 이들 君火와 相火는 모두 天火로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十二經이 있음에 十二經에서 心이 君火가 되고 包絡과 三焦가 相火가 되니, 이들 君火와 相火는 모두 人火로 칭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孫一奎는 相火가 天火로서 肝腎에 깃들어 있다고 한 丹溪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에 관점에서는 君火와 相火가 각각 人火와 天火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외의 君火, 相火는 天火인 것이고 인체 내의 君火와 相火는 人火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孫一奎는 天火로서의 君火와 相火에는 각각 春熱과 夏暑, 陽動과 陰靜의 차이가 있으며, 人火로서의 君火는 實火인 반면 相火는 虛火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²¹⁾ 孫一奎의 이 같은 논의는 丹溪가 君火, 相火를 각각 人火, 天火라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예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君火, 相火와 人火, 天火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밝힌 것 외에도 孫一奎는 君火, 相火와 人火, 龍火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였는데, 즉 君火는 人火와 같고 相火는 龍火와 같다고 한 것이다.²²⁾ 이는 인체 내의 火인 人火로서의 君火, 相火의 治法과 관련하여 王冰의 人火, 龍火의 설을 취한 것으로서, 그가 비록 丹溪를 비판하면서 君火, 相火가 모두 함께 天火이기도 하고 人火이기도 하다고 했지만, 병리적인 火로서의 君火, 相火 각각의 특성을 말함에 있어서는 君火는 人火이고 相火는 龍火와 같다고 한 丹溪의 경우와 같음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에서 君火는 水로 滅하는 正治의 법을 써야 하므로 黃連의 苦味로 瀉하게 되고, 相火는 水로 滅할 수 없고 그性を 따라 折해야 하므로 黃柏의 辛味로 制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相火에 黃柏을 쓴다고 한 것 외에 또한 氣와 血을 나누어 甘溫의 味로 補한다고도 한 것을 볼 때²³⁾, 孫一奎의 주장은 相火와 治法과 관련하여 丹溪의 설에 너무 치우치는 폐단을

20) 孫一奎. 醫旨緒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1. “嘗按『內經·陰陽應象大論篇』有壯火氣衰, 少火氣壯之言, 「天元紀大論篇」有君火以名, 相火以位之言, 并無天火, 人火, 龍雷之火之說, 至丹溪而始言之, 何哉? 愚度丹溪之意, 既謂肝腎之陰悉具相火, 是以指肝腎之陰火爲相火. 又曰, 見于天者, 出于龍雷則木之氣, 出于海則水之氣, 或以龍雷皆動物, 凡動皆屬火, 故以相火爲天火耶. 假若以動皆屬火, 而遂以相火爲天火, 然則君火亦有動之時也, 獨不可屬之天哉? 愚謂火爲造化生息之機, 不能不動, 第不可以妄動. 火有天人之分, 不可以君相分屬天人, 何言之? 蓋天有六氣, 君火主二之氣, 相火主三之氣, 是君相皆可以天火稱也. 人有十二經, 十二經中心爲君火, 包絡三焦爲相火, 是君相皆可以人火稱也.”

21)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是知君相二火, 以外言之, 有春熱, 夏暑, 陽動, 陰靜之分也. 以內言之, 有實瀉虛補, 五志勝治, 藥治之分也. 以外內兩傷言之, 有表裏, 邪正, 補瀉兼施之分也.”
22)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42. “故曰, 君火者, 猶人火也, 可以水滅, 可以正治, 有黃連之苦瀉之. 相火者, 猶龍火也, 不以水滅, 不以正治, 順其性而折之, 惟黃柏之辛制之.”
23)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42-43. “故內之君火者, 實火也, 猶人火也, 宜用寒涼之味瀉之. …… 內之相火者, 虛火也, 猶龍火也, 宜分氣血而用甘溫之味補之. ……”

바로잡고자 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趙獻可

趙獻可는 丹溪와 달리 五行 중 火만이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五行 모두가 陽과 陰의 둘로 나뉜다고 하였다.²⁴⁾²⁵⁾ 이에 따라 火에 있어 陽火는 天上의 日月之火를 말하고 陰火는 炳燭之火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 陽火와 陰火를 對待의 관계에 있는 火라 하였다. 또한 이들 陽火, 陰火와는 별도로 또한 水中之火, 土中之火, 金中之火, 木中之火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²⁶⁾, 이 같은 구분을 바탕으로 趙獻可는 相火를 水中之火이자 龍雷之火라 하였다. 여기서 그는 龍을 陽의 物이라 하였으며,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龍은 天地간의 陽氣의 승강을 따라 상승과 하복을 반복하는 것이다. 龍이 상승하는 것은 一陰이 생하는 季春의 시기인데, 이 시기는 물속은 차가워지고 天上은 熱한 때로서 陽의 物인 龍이 陽을 따라 상승하게 된다. 같은 이치로 인체 내에서도 만약 龍火가 깃들어 있는 腎 중에 陰이 盛해지면 龍火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위로 상승하여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龍火의 性을 따라 腎을 溫하게 하는 약을 씌으로써 龍火를 위하여 ‘歸源’하도록 하는 법을 써야 한다고 보았다.²⁷⁾

24) 趙獻可.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832. “以木火土金水, 配心肝脾肺腎, 相生相克, 素知之矣. 諸書有云, 五行唯一, 獨火有二, 此言似是而非. 論五行俱各有二, 奚獨一火哉. 若論其至, 五行各有五, 五五二十五, 五行各具一太極,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今以五行之陰陽生死言之, 木有甲木屬陽, 乙木屬陰. 人身之膽是甲木, 屬足少陽, 肝是乙木, 屬足厥陰, 甲木生于亥而死于午, 乙木生于午而死于亥. 火有丙火屬陽, 丁火屬陰. 人身之相火屬手少陽, 心火屬手少陰, 丙火生于寅而死于酉, 丁火生于酉而死于寅.”

25) 이는 기본적으로 張元素가 『醫學啓源』의 「五臟六腑除心包絡十一經脈證法」에서 말한 것과 같다.

26) 趙獻可.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833. “以火言之, 有陽火, 有陰火, 有水中之火, 有土中之火, 有金中之火, 有木中之火. 陽火者, 天上日月之火, 生于寅而死于酉, 陰火者, 炳燭之火, 生于酉而死于寅, 此對待之火也.”

27) 趙獻可.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833. “水中火者, 霹靂火也, 即龍雷之火, 無形而有聲, 不焚草木, 得雨而益熾, 見于季春而伏于季秋. 原夫龍雷

이 같은 주장은 相火를 水中之火이자 龍雷之火로 보는 점에서는 丹溪와 같지만 그 治法 면에서는 黃柏 같은 苦寒한 성미의 약으로 相火를 다스리는 丹溪 이래의 설을 비판한 것으로서, 丹溪 등의 앞선 의가들이 따른 王冰의 龍火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여기에 龍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더하여 丹溪를 비판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相火에 黃柏과 같은 苦寒한 성미의 약을 쓰는 것은 相火를 더 타오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는 곧 王冰이 龍火는 水濕을 만나면 오히려 더 타오른다고 한 것에 대한 그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趙獻可는 마치 거센 비가 내릴 때 龍雷之火가 더 타오르다가 태양이 비추면서 火가 절로 소멸되듯이 체내의 相火도 火를 만나면 滅하게 된다고 보았다.²⁸⁾ 이와 같은 趙獻可의 논의는 陽의 物에 속하는 龍을 溫한 성미의 약으로 다스리면서 이를 태양이 비추면 龍雷之火가 절로 소멸되는 것과도 같다고 한 점에서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龍火에 대한 ‘歸源’과 “逐之”의 치법은 그 개념상 서로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張景岳

張景岳은 水中之火를 先天眞一之火가 坎 중에 藏해져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命門에 陰이 勝할 때 元陽이 이를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을 龍火가 游散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 때 陽和之氣로서의 龍火의 性을 따라 甘溫의 법을 사용함으로써 龍火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하였다.²⁹⁾ 이로부터

之見者, 以五月一陰生, 水底冷而天上熱, 龍爲陽物, 故隨陽而上升, 至冬一陽來復, 故龍亦隨陽下伏, 雷亦收聲. 人身腎中相火, 亦猶是也. 平日不能節欲, 以致命門火衰, 腎中陰盛, 龍火無藏身之位, 故游于上而不歸, 是以上焦煩熱咳嗽等證. 善治者, 以溫腎之藥, 從其性而引之歸原, 使行秋冬陽伏之令, 而龍歸大海.”

28) 趙獻可.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853. “今人率以黃柏治相火, 殊不知此相火者, 寄于肝腎之間, 此乃水中之火, 龍雷之火也, 若用黃柏苦寒之藥, 于是水滅濕伏, 龍雷之火愈發矣. 龍雷之火, 每當濃陰驟雨之時, 火焰愈熾, 或燒毀房屋, 或擊碎木石, 其勢誠不可抗. 惟太陽一照, 火自消滅, 此得水則熾, 得火則滅之一驗也.”

29)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

더 景岳은 龍火를 先天之火, 元陽 등의 개념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虛熱인데 水가 부족한 경우라면 단지 水를 補하여 火와 짝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甘平한 성미의 약들로 陰을 補하도록 한다. 景岳은 이 같은 경우에 丹溪가 知母, 黃柏을 쓴 것이 火를 去하여 水를 補하고자 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오히려 腎을 敗하도록 만들어 泄瀉, 食減 등을 초래할 뿐이라 하였다.³⁰⁾ 景岳은 相火와 관련하여 그것과 龍火, 天火의 개념을 직접 연결시켜 논하지는 않았지만, 相火는 곧 元氣로서 命門에 있다고 하였고 龍火 역시 先天之火, 元陽 등으로 표현했으므로 결국 龍火를 相火와 같은 의미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景岳은 『類經』에서 『素問·至真要大論』의 “微者逆之, 甚者從之”에 대해 말하기를, “病之微者”는 “陽病則熱, 陰病則寒”의 경우처럼 眞形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서 正治의 법을 쓸 수 있고, “病之甚者”는 “熱極反寒, 寒極反熱”의 假象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反治의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³¹⁾ 여기서 反治의 법은 곧 “以寒治寒, 以熱治熱”을 통해 그 병에 從하는 것을 말한다.³²⁾ 景岳은 假寒과 假熱 중

假熱의 경우에 있어 특히 丹溪의 설을 따름으로 인해 치료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많은 경우 사실은 氣의 부족으로 인한 假熱임에도 丹溪가 말한 “氣有餘, 便是火”의 설을 따라 다스리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곤 한다고 하였다.³³⁾

4. 龍火 개념의 淵源 및 그 治法에 대한 고찰

相火學說 내에서 相火로서의 龍火의 治法은 龍火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王冰의 治法의 응용 등의 면에서 일정한 分岐를 보인 것이었다. 이에 의가들이 보인 治法의 分岐를 王冰의 治法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기에 앞서 王冰이 말한 龍火 개념을 정리하고 龍火 개념의 淵源에 대해 간략하게 탐색해본 다음 의가들의 龍火 治法 관련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1) 王冰의 龍火 개념

역대 의가들이 말한 龍火 개념은 본래 王冰의 『素問』 注解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는 『素問·至真要大論』에서 “寒者熱之, 熱者寒之, 微者逆之, 甚者從之”라 한 부분 가운데 “微者”와 “甚者”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한 예로서 人火와 龍火를 말하였다.³⁴⁾ 그에 따르면 人火는 草木을 만나면 더 타오르는 특성이 있고 水濕으로 滅할 수 있는 반면, 龍火는 水濕을 만나면 더 타오르는 특성이 있기에 水濕으로는 滅할 수 없고 火로 逐하는 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火는 본래 水로 攻할 수 있는 것인데

以寒治寒, 以熱治熱, 從其病者, 謂之反治.”

社. 1999. p.908. “不知水中之火, 乃先天真一之氣, 藏于坎中, 此氣自下而上, 與後天胃氣相接而化, 此實生生之本也. …… 若使命門陰勝, 則元陽畏避, 而龍火無藏身之地, 故致游散不歸, 而爲煩熱格陽等病. 凡善治此者, 惟從其性, 但使陽和之氣直入坎中, 據其窟宅而招之誘之, 則相求同氣, 而虛陽無不歸原矣. 故曰甘溫除大熱, 正此之謂也. 奈何味者不明此理, 多以虛陽作實熱, 不思溫陽此火, 而但知寒涼可以滅火, 安望其尚留生意而不使之速斃耶?”

30)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9. “蓋虛火因其無水, 只當補水以配火, 則陰陽得平而病自可愈. 若欲去火以復水, 則既虧之水未必可復, 而并火去之, 豈不陰陽兩敗乎. 且苦寒之物, 絕無升騰之生氣, 而欲其補虛, 無是理也. 故子之治此, 必以甘平之劑, 專補真陰, 此雖未必即愈, 自可無害, 然後察其可乘, 或暫一清解, 或漸加溫潤, 必使生氣漸來, 庶乎脾可健則熱可退, 肺漸潤則嗽漸寧, 方是漸復之佳兆, 多有得生者. 若但知知柏爲補陰, 則愈敗其腎, 而致泄瀉食減, 必速其殆矣.”

31)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3. “病之微者, 如陽病則熱, 陰病則寒, 眞形易見, 其病則微, 故可逆之. 逆即上文之正治也. 病之甚者, 如熱極反寒, 寒極反熱, 假證難辨, 其病則甚, 故當從之, 從即下文之反治也.”

32)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3. “以寒治熱, 以熱治寒, 逆其病者, 謂之正治.

33)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4. “假寒之證不難治, 而假熱之治多誤也. 然實者多熱, 虛者多寒, 如丹溪曰, 氣有餘, 便是火, 故實能受寒, 而余續之曰, 氣不足, 便是寒, 故虛能受熱.”

34)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606. “夫病之微小者, 猶人火也, 遇草而熾, 得木而燔, 可以濕伏, 可以水滅, 故逆其性氣, 以折之攻之. 病之大者, 猶龍火也, 得濕而焰, 遇水而燔, 不知其性, 以水濕折之, 適足以光焰詣天, 物窮方止矣. 識其性者, 反常之理, 以火逐之, 則燔灼自消, 焰火撲滅. 然逆之, 謂以寒攻熱, 以熱攻寒, 順之, 謂攻以寒熱, 雖順其性, 用不必皆同.”

龍火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병이甚한 경우가 되며, 火를 다스림에 있어 水가 아니라 火로 逐하는 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逆이 아닌 從의 治法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微者”에 “逆之”의 治法을 쓰는 것은 寒으로 熱을 攻하거나 熱로 寒을 攻하는 것이라 하였고, “甚者”에 “從之”의 治法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寒 또는 熱로 攻함에 있어 證의 性을 따르되 다 같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逆之”의 治法을 ‘正治’라 하고 “從之”의 治法을 反治라고 하며, 『至真要大論』에서는 특히 反治에 대해 이를 이른바 “伏其所主, 先其所因”의 법이라 하였다. 즉 熱因寒用, 寒因熱用, 塞因塞用, 通因通用 등의 법을 말하는 것이다.³⁵⁾

2) 龍火 개념의 淵源에 대한 탐색 - 『左傳』에 나타난 龍

이상에서 王冰이 말한 龍火 개념은 그 연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龍火라 한 것은 분명 龍이라는 物이 지니는 상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문장에서는 丹溪가 龍火를 天火의 개념으로 말한 점을 참고하여, 龍火 개념의 연원에 대해 『春秋左氏傳』(이하 『左傳』으로 간칭)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左傳』은 先秦시기의 저작들 중 『周易』, 『國語』 등과 함께 동물적인 의미로서의 龍에 대한 기술을 찾아볼 수 있는 저작이며³⁶⁾, 이 『左傳』에는 또한 人火, 天火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左傳』에서 말한 人火, 天火 개념은 丹溪가 말한 人火, 天火 개념과 물론 다른 배경을 지닌 것이지만, 역시 火를 둘로 나눈 예로서 옛 문헌 중의 火의 개념에 대한 고찰 뿐 아니라 龍火와 天火 개념 간의 상관성을 탐색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左傳』에서 말한 人火, 天火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 후 이어 龍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左傳』에 나타난 人火와 天火

『左傳·宣公十六年』의 내용을 보면 火를 人火와 天火로 나누어 말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름에 成周의 宣榭에 불이 났는데 이는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이다. 무릇 火에서 人火는 火라 하고 天火는 災라 한다.”³⁷⁾

이 내용은 魯나라 宣公 16년의 기사 중 “夏, 成周宣榭火”의 부분에 대해 논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人火는 火라 하고 天火는 災라 하며, 人火가 사람이 낸 불이라면 天火는 자연현상에 따른 화재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天火를 災라 한 것에는 상당 부분 天火가 일종의 災異현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음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春秋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것인 셈이다.

『左傳』에는 火災, 水災, 地震, 飢饉, 日食, 彗星, 客星 등 災異현상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화재에 대한 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름 4월 陳 땅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이를 두고 鄭나라 大夫 裨竈가 말하기를, ‘5년 후에 陳나라는 다시 諸侯國으로 복귀하고 복귀한 지 52년 후에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子產이 그 이유를 묻자 裨竈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陳나라의 본성은 水에 속합니다. 火는 水와 짝이 되는데, 이 火는 楚나라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火가 출하여 陳나라에 화재가 일어났고, 이는 楚나라를 몰아내고 陳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짝이 되는 것은 다섯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5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歲星이 다섯 차례 鶉火星의 위치에 나타난 후 陳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楚나라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天道입니다. 그래서 52년 후라고

35)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54. “帝曰, 何謂逆從? 岐伯曰, 逆者正治, 從者反治, 從少從多, 觀其事也. 帝曰, ‘反治何謂?’ 岐伯曰, ‘熱因寒用, 寒因熱用, 塞因塞用, 通因通用, 必伏其所主, 而先其所因, 其始則同, 其終則異, ……”

36) 周及徐. 上古時期的“龍”. 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 35(1). p.45.

37)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500. “夏, 成周宣榭火, 人火之也. 凡火, 人火曰火, 天火曰災.”

말한 것입니다.”³⁸⁾

이 내용을 보면 화재의 발생이 陳과 楚의 두 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을 말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것에 “災”라 한 것은 이 불이 곧 天火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裨竈란 인물은 陳이 五行상 水에 속하고 楚가 火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陳나라에 불이 난 것은 곧 陳나라 사람들이 楚나라 사람들을 몰아내고 陳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火가 출하여 陳나라에 불이 난다는 것은 心宿가 출현하여 불을 일으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화재가 곧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에 속한다는 것이며, 이후 鶉火星의 영향으로 결국 陳나라가 망한다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魯나라 襄公 9년의 기록에 따르면 古代에는 火星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는 火正이라는 관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火正은 天子를 도와 祭를 올릴 때 동방의 心星 즉 心宿나 남방의 昧星을 통한다고 하였다. 心宿는 大火星이라고도 하고 昧星은 鶉火星이라고도 하며, 火正은 이 두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火를 출하거나 納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³⁹⁾ 이 같은 문화에서 자연재해로서의 화재는 곧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렇기에 裨竈란 인물은 화재의 발생을 하늘의 별의 움직임 및 陰陽의 術數적인 관점을 통해 바라보면서 국가의 명운을 점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左傳』에서 말한 天火는 비록 災異현상으로서의 개념을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天에서 출하는 자연발생적인 火를 말한 것으로서, 天에서 출한다는 것은 곧 어떤 形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虛無에서 생할 수 있는 火로서의 의미로 轉用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8)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1009. “夏四月, 陳災, 鄭裨竈曰, ‘五年, 陳將復封. 封五十二年而遂亡.’ 子產問其故, 對曰, ‘陳, 水屬也, 火, 水妃也. 而楚所相也. 今火出而火陳, 遂楚而建陳也. 妃以五成, 故曰五年. 歲五及鶉火而後陳卒亡, 楚克有之, 天之道也, 故曰五十二年.’”

39)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673. “古之火正, 或食于心, 或食于昧, 以出納火. 是故昧爲鶉火, 心爲大火.”

(2) 『左傳』에 나타난 龍의 개념

『左傳』에서 말한 人火, 天火의 경우를 보면 人火는 사람이 낸 火이고 天火는 자연현상에 의한 火라 하였으므로 그 火의 기원을 말한 셈인 반면, 王冰이 말한 人火와 龍火는 그 기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火로서의 특성을 말했다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약 이 둘을 연결시켜보고자 한다면 일단 人火의 경우는 『左傳』과 王冰의 논의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人火라는 표현이 공통적이고, 草木을 만나면 더 타오르는 것이라는 王冰의 말도 일반적인 火의 이치상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天火와 龍火의 경우는 서로 표현이 다르고, 天火는 災異현상의 개념으로 언급된 반면 龍火는 水濕을 만나면 더 타오르는 것이라는 특성이 강조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연현상으로서의 火는 龍火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龍火라 불리는 이유는 당연히 ‘龍’이 지니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左傳』을 보면 역시 龍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 『左傳·昭公二十九年』의 傳에서는 龍을 “水物”이라 하여 그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을에 龍이 絳 땅의 교외에 출현하였다. 이에 魏獻子가 蔡墨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를 虫 가운데 龍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다고 하니, 산 채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오. 龍이 지혜롭다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오?’ 蔡墨이 답하였다. ‘사람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하니, 龍이 실제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들 중에는 龍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로 인해 나라에 參龍氏, 御龍氏 등이 있었습니다.’ 魏獻子가 말하였다. ‘이 두 씨족에 대해서는 나도 들어본 일이 있으나 두 씨족이 있게 된 내력은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오?’ 蔡墨이 답하였다. ‘옛날에 颺叔安의 후손 가운데 董父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로 龍을 매우 좋아하다 보니 龍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어 그것을 먹였고, 이에 龍들이 많이 그를 따르면서 그는 龍을 길들여 기르는 일로

舜 임금을 섬겼습니다. 舜 임금은 그에게 董이라는 姓과 參龍이라는 氏를 하사했습니다.’ …… 魏獻子가 물었다. ‘그럼 지금은 왜 龍이 보이지 않소?’ 蔡墨이 답하였다. ‘무릇 物에는 이를 관장하는 官원이 있습니다. 官원은 자신의 기술을 닦으면서 온종일 자신이 맡은 일을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직분을 소홀히 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 官직을 잃고 物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요, 官원이 그 업에 힘쓰면 그 物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그 物을 저버리면 物은 이에 숨어 나타나지 않고 움츠러 잘 자라지 못합니다. …… 龍은 水의 物입니다. 그런데 水의 官직을 폐한 까닭에 龍을 산 채로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周易』에서 乾卦가 姤卦로 변하는 것에 대해 潛龍勿用이라 하고 同人卦에 見龍在田, 大有卦에 飛龍在天, 夬卦에 亢龍有悔, 坤卦에 群龍無首吉, 坤卦가 剝卦로 변함에 龍戰于野라 하였는데, 만약 아침저녁으로 龍을 본 것이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龍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⁴⁰⁾

이상의 내용은 魏獻子和 蔡墨이란 인물 간의 대화로서, 그에 따르면 上古시대에 전문적으로 龍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龍의 습성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들이 龍의 습성을 잘 알고 돌보았기에 龍도 그들에게 자신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로는 水官⁴¹⁾을 폐하면서 龍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곧 水物로서의 龍의 습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龍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水官들이 직분을 다함으로 인해 龍이 사람을 멀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말하기를 『周易』에 龍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과거에 龍이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던 시기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左傳』에서 龍을 水의 物이라 한 것은 龍火가 水를 만나면 더 타오르는 성질이 있다고 한 王冰의 말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龍火가 지니는 火로서의 측면에 대해서는 龍과 火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시 『左傳』에서 볼 수 있는 “龍紀”란 것에 대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左傳·昭公四年』의 내용을 보면 “大皞氏以龍紀, 故爲龍師而龍名”⁴²⁾이라 한 부분을 볼 수 있으며, 宋會群에 따르면 이 “龍紀”란 표현은 龍을 통해 시간을 측정한다는 의미로서 곧 古代에 龍의 움직임에 기초로 한 曆法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⁴³⁾. 이 “龍紀”는 기록상 중국의 전설시대인 五帝시기의 曆法이라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며, 蒼龍星象의 여섯 단계의 움직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蒼龍星象이란 上古시대 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함에 있어 大火星 및 角, 亢, 氏, 房, 尾, 箕를 하나로 엮어 관찰한 星象으로서, 봄이 되면 동방으로부터 떠올라 仲春으로부터 初夏에 이르기까지 동남방의 밤하늘을 角, 亢, 氏, 房, 心, 尾, 箕의 순서로 수놓는 것이 마치 거대한 龍의 형상과도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관련하여 『左傳·桓公五年』의 내용을 보면 “凡祀, 啓蟄而郊, 龍見而雩, 始殺而嘗, 閉蟄而烝”⁴⁴⁾라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龍見而雩”라 한 것은 곧 봄이 되어 龍이 출현하는 시기가 되

40)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p.1188-1189. “秋, 龍見于絳郊. 魏獻子問于蔡墨曰, ‘吾聞之, 虫莫知于龍, 以其不生得也. 謂之知, 信乎?’ 對曰, ‘人實不知, 非龍實知. 古者畜龍, 故國有參龍氏, 有御龍氏.’ 獻子曰, ‘是二氏者, 吾亦聞之, 而不知其故, 是何謂也?’ 對曰, ‘昔有鸞叔安, 有裔子曰董父, 實甚好龍, 能求其者欲以飲食之, 龍多歸之, 乃撓畜龍以服事帝舜. 帝賜之姓曰董, 氏曰參龍. …… 獻子曰, ‘今何故無之?’ 對曰, ‘夫物, 物有其官. 官修其方, 朝夕思之. 一日失職, 則死及之. 失官不食, 官宿其業, 其物乃至. 若泯棄之, 物乃坻伏, 郁湮不育. …… 龍, 水物也. 水官棄矣, 故龍不生得. 不然, 周易有之在乾之姤曰潛龍勿用, 其同人曰見龍在田, 其大有曰飛龍在天. 其夬曰亢龍有悔, 其坤曰見群龍無首吉, 坤之剝曰龍戰于野. 若不朝夕見, 誰能物之.’”

41) 『左傳』에 따르면 五行 중 水를 담당한 官직은 玄冥이라 불렀다.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1189. “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

冥, 土正曰后土”

42)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1079. “昔者黃帝氏以雲紀, 故爲雲師而雲名. 炎帝氏以火紀, 故爲火師而火名. 共工氏以水紀, 故爲水師而水名. 大皞氏以龍紀, 故爲龍師而龍名. ……”

43) 宋會群. 乾卦六龍態的天文含義研究-『左傳』“龍紀”曆法鈎沈. 史學月刊. 2002. 第2期. p.37.

44)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64.

면 비가 내릴 것을 기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龍은 春분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고 秋分이 되면 연못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보다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⁴⁵⁾ 蒼龍星象을 통한 구체적인 曆法이란 10개의 天干으로 날을 세어 10일을 1句, 3句을 1개월로 하여 2개월이 蒼龍星象의 1季가 되며, 이에 따라 蒼龍星象의 6季가 1년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1년이 360일이 되는 것으로서⁴⁶⁾, 1년이 실제로는 365일이므로 연말에 過年日을 두어 365일에 맞추으로써 曆法으로서 실용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蒼龍星象의 움직임이 의미하는 것은 곧 1년 중의 陽氣의 변화주기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左傳』에서 말한 龍은 水에 속하는 物이자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陽氣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古代에 龍의 특성을 잘 알아 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곧 龍火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암시를 주는 것인 셈이다. 따라서 이를 만약 相火學說 내의 龍火 개념에 적용해 본다면 龍火가 水를 만나면 더 타오른다고 한 것 등의 火로서의 특성이나 龍火로 인한 증의 처방을 논함에 있어 일정하게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相火로서의 龍火에 대한 治法의 分岐

王冰이 말한 龍火 개념은 본래 병이甚하여 反治가 필요한 경우의 한 예로서 말한 것일 뿐 相火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의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龍火 개념은 특히 金元代에 臟腑學說이 발달하면서 臟腑의 火의 의미로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相火 개념과 연결되어 쓰이

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臟腑의 火로서 相火가 지니는 水中之火로서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王冰의 注解에 나타난 본래의 내용이 相火學說의 다양한 면들과 섞이면서 일정한 관점상의 分岐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즉 龍火 개념이 相火의 본질에 대한 관점들이나 相火가 나타내는 病機 면의 虛實 등과 맞물리면서 그 治法이 “涼劑熱服”, 滋陰降火, 引火歸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龍火 개념이 王冰으로부터 비롯된 것만 만큼 의가들은 그 다양한 治法을 논함에 있어 그것들을 일단 王冰이 “以火逐之”라 한 것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할 수 있으며, “以火逐之”의 법이 곧 反治로서 龍火의 性에 順하는 것이라 할 때 각각의 治法에서 무엇이 龍火의 性에 順하는 것인지의 문제 등에 직면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각 治法들을 王冰의 注解의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涼劑熱服”의 경우는 의가들이 龍火와 관련하여 “以火逐之”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治法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張子和가 龍火에 대해 “비록 涼藥을 쓰지만 冷服해서는 안 되니, 龍火에는 ‘以火逐之’의 법을 써야 한다(雖用涼藥而不可使冷服, 爲龍火宜以火逐之)”라 한 경우를 보면 熱服하는 것이 곧 龍火의 性에 順함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以火逐之”의 “火”를 熱服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는 冷服하는 것이 곧 龍火를 水로 滅하려 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인데, 龍火를 水로 滅하려 한다는 것이 涼藥이 아니라 冷服이라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소 의문을 가질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伏其所主, 先其所因”의 反治란 관점에서 보면 ‘主’는 涼劑이고 ‘因’은 熱服이 되므로 결국 “以火逐之”의 “火”는 ‘因’이 되는 셈이다. 다만 徐儀明의 연구에 따르면⁴⁷⁾, 明末清初의 학자인 王夫之와 같은 경우는 大黃, 黃連, 黃柏 같은 약들에 대해 이들의 약성을 寒이 아니라 火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⁴⁸⁾, 이는 이들 약들의 작

45)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p.245. “龍, 鱗虫之長, 能幽能明, 能細能巨, 能短能長. 春分而登天, 秋分而潛淵. 從肉飛之形, 童省聲.”

46) 天干으로 紀日하여 360일을 1년으로 하는 것은 『內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素問·六節藏象論』에 따르면 “黃帝問曰, 余聞天以六六之節, 以成一歲, …… 不知其所謂也? 岐伯曰, 天以六六爲節, 地以九九制會. 天有十日, 日六竟而周甲, 甲六復而終歲, 三百六十日法也.”라 하였다.

47) 徐儀明. 論王夫之的中醫哲學思想. 鄭州輕工業學院學報. 2011. 12(1). p.49.

용이 곧 火로 火를 다스리는 것이라 한 것이다⁴⁹⁾. 이 같은 논리를 바로 “以火逐之”에 연결시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드물지만 龍火에 대해 涼劑의 熱服과 달리 熱劑의 冷服을 말할 경우도 있는데, 清代 의서인 『瘍醫大全』의 「牙齒門主論」의 예를 보면 顧世澄은 심한 牙痛의 원인을 龍火로 보는 경우에 대해 熱藥을 冷服하는 從治의 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⁵⁰⁾ 이는 涼劑의 熱服과는 달리 복용법이 아닌 藥이 龍火의 性에 順하는 것으로서, 곧 熱藥이 “以火逐之”의 “火”가 되는 것이다. 이를 “伏其所主, 先其所因”의 관점에서 보면 熱藥이 ‘因’이 되고 冷服이 ‘主’가 되는 셈이다.

한편 滋陰降火나 引火歸源의 경우에 있어 예를 들어 孫一奎의 경우를 보면, 그가 龍火에 대해 “相

火者, 猶龍火也, 不以水滅, 不以正治, 順其性而折之, 惟黃柏之辛制之.”라 한 것은 相火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丹溪의 滋陰의 설을 따른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黃柏을 쓰는 것이 곧 龍火의 性에 順하는 것이다. 여기서 龍火를 黃柏의 辛味로 制한다는 것은 丹溪가 언급했듯이 東垣 아래의 설을 따른 것으로서, 丹溪는 東垣이 炒黃柏의 辛味로 水中之火를 瀉했다고만 했지만 孫一奎는 이를 黃柏의 辛味が 龍火의 性에 順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으로 黃柏의 寒性이 龍火를 折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東垣 아래의 설을 王冰의 注解에 근거하여 논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를 만약 “伏其所主, 先其所因”의 관점에서 본다면 黃柏의 寒性이 ‘主’가 되고 辛味が ‘因’이 되는 셈이다. “以火逐之”의 관점에서는 辛味が “火”가 되는 셈이지만, 龍火에 대해 “順其性而折之”라 하여 “逐之”가 아닌 “折之”의 표현을 쓴 것은 黃柏의 쓰임이 “以火逐之”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한편 引火歸源의 개념은 趙獻可, 張景岳 등의 明代 溫補派 의가들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王冰의 龍火의 설을 따르면서도 주로 丹溪에 대한 비판의 각도에서 相火學說을 전개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王冰이 말한 龍火의 특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龍火와 관련하여 그 陽氣 내지 元氣로서의 특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治法 면에서 “以火逐之”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引火歸源의 治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引火歸源의 개념이 “以火逐之”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은 후에 陳士鏞이 引火歸源을 말하면서 龍火에 대해 ‘逐’이 아닌 ‘引’의 법을 통해 龍火를 水 중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직접 말한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¹⁾ 그는 『辨證錄』의 「消渴門」에서 腎水가 勝함에도 渴이 심한 원인을 龍火로써 설명하는 가운데 “以火逐之”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를 “引火歸源”

48) 王夫之. 船山思問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p.64. “其化也速, 則消之速, 其化也遲, 則以時消者亦以時息也. 故倉公謂洞下之藥爲火齊. 五行之化, 唯火爲速. 大黃, 芩, 連, 梔, 檳之類, 皆火齊也, 能疾引人水穀之滋, 膏液之澤而化之. 方書謂其性寒者, 非也. 火挾火以速去, 則府藏之間, 有餘者清以適, 不足者枵以寒, 遂因而謂之寒. 可謂其用寒, 不可謂其性寒也.”

49) 王夫之가 大黃 등의 약을 火齊라 하면서 倉公이 말한 火齊를 인용한 것은 倉公의 火齊湯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史記·扁鵲倉公列傳』을 보면 倉公과 관련하여 “臣意欲以火齊湯, 一飲得前洩, 再飲大洩, 三飲而疾愈.”이라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李今庸에 따르면 『史記』에 등장한 火齊湯은 특정한 처방의 명칭이 아닌 것으로서, 火齊는 火候를 의미하고 火齊湯은 일종의 劑型的 의미일 뿐이라 하였다.(李今庸. 『史記』倉公火齊湯考. 中醫文獻雜誌. 2012. 第2期. p.33) 宮慶東 등에 따르면 후대에 火齊湯이 方名으로 인식된 것은 伊尹의 『湯液經法』에서 三黃瀉心湯을 火齊湯이라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火齊湯은 곧 『傷寒論』의 大黃黃連瀉心湯, 『金匱要略』의 瀉心湯과 약물구성이 같다. 이로 인해 역대 의가들은 三黃瀉心湯 등을 倉公의 火齊湯과 같은 처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清代的 張璐는 “伊尹三黃湯, 倉公名火齊湯, 『金匱要略』名爲瀉心湯.”이라 하였다.(宮慶東, 張沁園, 王洪海. 大黃黃連瀉心湯歷史源流及古今應用.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14. 38(1). p.5.) 王夫之 역시 火齊湯을 三黃瀉心湯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0)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622. “又曰, 如驟發大痛者, 多屬龍火, 如疾風暴雨, 焚灼草木, 最速最烈, 必用從治之法, 熱藥冷凍飲料, 則火得其源而歸之矣.”

51) 陳士鏞. 辨證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 249. “夫腎水泛上, 水升于咽喉口舌之間, 宜乎不渴, 何以渴之甚也? 蓋下寒之極, 逼其火于上焦, 故作渴耳. 此火乃腎中之火, 卽龍雷之火也. 一發而不可制, 宜引而不宜逐, 可于水中引之.”

으로 수정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 중에 대해 陳士鏗은 玄參, 肉桂, 山茱萸, 五味子, 麥門冬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龍火를 '引'하는 역할을 하는 약은 肉桂라 하였다. 그에 따르면 玄參이 龍火를 消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肉桂가 玄參과 합해져 그 寒性を 조절함으로써 龍火가 좋아하는 溫한 상태를 만들게 되며, 그 溫한 상태는 龍火의 腎臟으로의 '歸源'을 이끌게 된다.⁵²⁾ 이 같은 治法은 결국 浮游하는 龍火의 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玄參의 寒性과 龍火를 불러들일 수 있는 肉桂의 熱性이 합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治法은 玄參과 肉桂의 두 약물이 서로 합해져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玄參의 寒性이 龍火를 消할 수 있다 해도 이는 玄參의 寒性이 肉桂의 熱性과 만나 그 寒性이 조절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肉桂도 玄參과 합해져 그 熱性이 약화된 후에야 龍火가 좋아하는 溫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이를 寒熱과 관련된 "伏其所主, 先其所因"의 관점에서 본다면 肉桂가 '因'이 되고 玄參이 '主'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冰이 말한 龍火가 水中之火로서의 개념으로 相火學說 내로 흡수된 가운데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의 治法은 相火學說의 발전과정에서 일정 부분 襲用되거나 수정되어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의가들이 王冰의 "以火逐之"의 법을 『素問』이 말한 反治의 법에 근거하여 이해하거나 새롭게 전개된 相火學說 내의 陰陽論, 藏象論적인 관점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정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는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의 법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의가들의 해석 및 응용을 참고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2) 陳士鏗. 辨證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 249. "蓋用肉桂者, 正引火歸源也. 引火而少用肉桂, 又何不可? 不知玄參善消浮游之火, 但其性太涼, 非多用肉桂則不足以制其寒, 制其寒則寒變爲溫, 而又非大熱, 正龍雷之所喜也. 蓋龍雷之性, 惡大寒而又惡大熱, 大寒則愈激其怒, 而火上炎, 大熱則愈助其橫, 而火上熾. 今用肉桂三錢, 入于玄參三兩之中, 則寒居其九, 熱居其一, 調和于水火之中. 又有山茱, 五味, 麥冬之助, 正不見其熱, 惟見其溫也. 龍雷喜溫, 所以隨之直歸于腎臟."

5. 결론

王冰이 『素問』의 注解에서 말한 龍火 개념은 水를 만나면 더 타오르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王冰에 따르면 火로 火를 다스리는 이른바 "以火逐之"의 법을 써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王冰 이후로 金元代에 들어 水中之火의 개념으로 일부 臟腑의 火를 말하거나 『內經』에서 말한 相火와 동일시하여 相火의 특성을 말하는 등으로 쓰이면서 점차 王冰이 말한 본래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相火學說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 같은 흐름은 朱丹溪에 이르러 체계화된 이후 그에 대한 계승 및 비판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龍火로서의 相火의 治法을 논함에 있어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의 治法 역시 의가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相火 및 龍火 개념에 대한 의가들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以火逐之"의 治法에 대한 논의도 일정한 分岐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以火逐之"의 治法에 대한 의가들의 서로 다른 논의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王冰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입장에서 느꼈을 수 있는 일정한 의문들이 감지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龍火에 대한 "以火逐之"의 법이 涼藥을 熱服하는 것이라 한 것은 熱服을 "以火逐之"의 "火"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冷服한다는 것은 龍火를 水로 滅하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以火逐之"의 "火"가 약물의 약성이 아니라 복용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소 의문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드물지만 "以火逐之"를 熱藥을 冷服하는 것으로 본 의가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문시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차이를 만약 약의 性과 用이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본다면, 약의 性이 寒이나 熱의 어느 쪽이든 그 약성이 복용법과 만난 결과가 모두 火의 특성을 지니면서 "以火逐之"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孫一奎는 相火에 黃柏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黃柏의 辛味가 龍火의 性에 順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이를 "以火逐之"라 하지 않고 "折之"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王冰의 注解를 일부만 취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黃柏으로 龍火를 “逐”한다고 하지 않고 “折”한다고 한 것은 黃柏의 쓰임에 대해 “以火逐之” 그대로 말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느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비록 黃柏에 대해 그 辛味를 말하면서 王冰의 注解와의 조화를 생각했지만 결국 黃柏의 苦寒한 성미가 중심이 된다는 점을 “折之”란 표현을 통해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의 약물이 지니는 성미 안에 이른바 “伏其所主, 先其所因”의 법이 다 포되어 있는 셈이다.

이후 相火에 대해 引火歸源을 말한 의가들은 溫한 성미의 약을 쓰는 것을 龍火의 性에 順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서, 이는 藥의 溫한 성미가 “以火逐之”의 “火”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龍火를 “引”한다고 한 것이 攻한다는 의미의 “逐”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이로 인해 陳士鐸의 경우처럼 “逐”을 “引”으로 바꾸어야 함을 직접 언급한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相火에 대한 治法과 관련하여 王冰이 말한 “以火逐之”를 중심으로 일정한 分岐가 나타난 것은 오늘날 相火學說을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그 이론적, 임상적 의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 宮慶東, 張沁園, 王洪海. 大黃黃連瀉心湯歷史源流及古今應用.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14. 38(1).
- 單体亮. 中醫“陰火”理論的古代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 李今庸. 『史記』倉公火齊湯考. 中醫文獻雜誌. 2012. 第2期.
-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白裕相.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의 「相火論」의 비교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 徐儀明. 論王夫之的中醫哲學思想. 鄭州輕工業學院學報. 2011. 12(1).
- 孫一奎. 醫旨緒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宋會群. 乾卦六龍態的天文含義研究-『左傳』“龍紀”曆法鈎沈. 史學月刊. 2002. 第2期.
- 王夫之. 船山思問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 李東垣. 珍珠囊藥性賦.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 李容範. 朱丹溪 相火論의 君火, 相火 개념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4).
-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張元素. 醫學啓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張子和. 儒門事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 趙體浩. 龍雷之火芻議. 河南中醫. 1983. 第1期.
- 趙獻可.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6.
- 周及徐. 上古時期的“龍”. 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 35(1).
-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 朱丹溪. 局方發揮.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 朱丹溪. 丹溪手鏡.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

- 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26. 陳林威. 飲水思源, 追尋古迹-試析“龍雷之火”含義. 光明中醫. 2011. 26(1).
27. 陳士鐸. 辨證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28.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29.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